

중국 청두 삼국지·두보·팬더의 무대를 가다

중국 쓰촨(四川)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진 곳은 아니다. 6만9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5월 원환 대지진을 떠올리거나 '사천요리(쓰촨요리)'를 꼽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쓰촨성은 31개 중국 성(省)·시(市) 자치구 가운데 만만치 않은 위상을 구축한 곳이다.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며 면적은 남한의 5배에 이른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삼국지'의 주요 배경지이기도 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글·사진 정재용 기자

과거·현재가 조화 이루는 땅 쓰촨성

쓰촨성은 삼국시대 위(魏), 오(吳)와 함께 중국 대륙을 삼분했던 촉(蜀漢)의 근거지다. 촉나라의 수도가 바로 쓰촨성 성도 청두(成都)다.

쓰촨성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배출했다.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이백(李白)이 태어난 곳이며 시성(詩聖) 두보(杜甫)도 한때 머물렀다. 현대에도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의 고향이며, 중국 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주더(朱德)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요리도 유명하다. 중국 4대 요리 가운데 하나인 쓰촨요리는 '얼얼한 매운맛'이 특색으로 마파두부, 사부사부 등이 대표 음식이다.

쓰촨성은 차(茶) 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중국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차 재배지가 바로 쓰촨성 아안의 명딩산(蒙頂山)이다. 2천여 년

전 보혜선사 오리진(吳理眞)이 벼를 작업을 하다 눈이 먼 홀어머니에게 야생차나무 잎으로 차를 다려 주면서 차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청두에만 찻집이 5천여 개에 달한다. 물이 맑아 술도 유명하다. 중국 10대 명주에 속하는 우량예, 수정방 등이 쓰촨성에서 생산된다. 중국 서부 대개발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주요 거점인 쓰촨성은 경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다. 우리나라와 쓰촨성 간 교류는 몇 년 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교역 규모는 2009년 7억5천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7억1천700만 달러로 늘었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롯데백화점 등 우리나라 기업 224개가 쓰촨성에 진출했다.

안성국 총영사는 "아직 우리나라와 중국 서부 지역의 경제통상 관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청두총영사관이 담당하는 쓰촨성, 충칭시, 윈난



안후다리(安順廊橋) 위에서 바라본 진장(錦江)과 주변 건물들.



1

(雲南)성, 구이저우(貴州)성과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110억 달러로 한중 전체 교역량의 3.9%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중국 동부 연안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중국 서부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쓰촨성 사람들은 한국에 상당히 호의적이다. 지난 9월 말 청두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쓰촨성 사회과학원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접목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만난 성이(盛毅) 쓰촨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쓰촨성 사람들은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류 덕분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면서 "한국을 찾는 쓰촨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물류 산업뿐 아니라 식품, 농업,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쓰촨성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촨성은 주자이거우(九寨溝·구채구), 아미산, 두장옌, 황룡사, 팬더 서식지 등 빼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인 방문객은 작년 14만4천 명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은 대부분 주자이거우를 보러 쓰촨성을 찾지만 성도이자 역사의 도시인 청두에도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두보가 머문 초당,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와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인 무후사(武侯祠), 팬더 기지 등 청두의 명소를 소개한다.

두보가 머문 초가에서 詩 한 수 읊다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好雨知時節) / 봄이 되니 내리네(當春乃發生). /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隨風潛入夜) /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潤物細無聲). / 들길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野徑雲俱黑) / 강 위에 뜬 배는 불빛만 비치네(江船火燭明). /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曉看紅濕處) / 금관성(청두)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花重錦官城).

시성(詩聖), 즉 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두보가 50세 무렵 청두 두보초당에 머물 때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라는 시다.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뜻이다.

1 청두사내 중심가를 흐르는 진장의 안순다리. 다리 위에 멋진 기와지붕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된다.



2

2 두보초당에 세워진 두보의 전신 동상. 소박한 삶을 상징하듯 아원 두보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3 1982년 덩샤오핑과 함께 두보초당을 찾은 김일성 북한 주석(왼쪽). 4 두보초당 유적지에서 발굴된 우물. 2001년 지하 파이프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5 두보가 살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초가집.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다.



3

4



5

아침 일찍 찾은 두보초당은 몽환적인 분위기마저 자아냈다. 봄이 아닌 가을, 밤이 아닌 아침이었지만 전날 내린 비 탓인지 마치 두보가 살던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봄비를 맞으면서 대나무 숲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 산업연구원의 강지연 연구원은 "두보초당은 비가 오는 스산한 날씨에 찾으면 운치를 느끼기에 더욱 좋다"고 일행에게 말했다. 두보초당은 759년 겨울 안녹산의 난을 피해 청두로 건너온 두보가 4년간 머물던 곳에 조성된 박물관이다. 정식 명칭은 두보초당 박물관이다. 완화초당(浣花草堂)이라고도 한다. 면적만 20만㎡에 달한다. 두보가 기거한 초가를 재현한 초당, 두보를 기리는 사당인 공부사(工部祠) 등으로 이뤄져 있다. 두보에 대한 서적과

자료 3만6천여 점과 도자기 등 유물 2천 점을 소장하고 있다. 10m를 훌쩍 넘는 대나무 군락에 싸여 있는 두보의 초가는 매우 소박했다. 2평 남짓한 서재와 침실, 부엌 등을 갖춘 작은 집이고 세간도 단출했다. 전란 상황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의 고단한 삶과 위대한 자연을 노래한 시성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다. 두보초당은 중국 국가 지도자들이나 외국 정상들이 청두에 오면 빠짐없이 찾는 곳이다. 1958년 3월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찾았다. 쓰촨성 출신인 덩샤오핑은 1982년 9월과 1986년 2월 두 차례나 두보초당에 들렀다. 특히 1982년 방문 때에는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도 동행했다. 박물관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도 1994년 4월 두보초당을 참관했다. 2013년 12월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방문했다.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각각 2000년 6월과 10월 두보초당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인 2005년 5월 이곳을 방문했다. 두보초당은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열연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황제나 권력자가 아닌 시인을 기리기 위해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을 운영하다... 중국인들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랑,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청두에서 마주한 유비와 제갈공명

“선제(先帝)께서는 창업의 뜻을 절반도 이루시기 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위나라 토벌을 위해 출진(出陣)할 때 촉나라 황제 유선(劉禪)에게 바친 출사표의 첫 구절이다.

웬만한 중년 남성이라면 학창시절 '삼국지' 완독에 한 번쯤 도전하지 않았을까. 청두에는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와 제갈공명을 함께 모신 사당 무후사가 있다. 무후(武侯)는 제갈공명이나 제갈공명을 추모하는 사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무후사의 정문에는 한소열묘(漢昭烈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소열(昭烈)은 촉한의 황

제 유비를 말하니, 한소열묘는 유비의 사당이라는 의미다. 어찌 된 일일까. 무후사는 황제인 유비와 신하였던 제갈공명을 함께 모신 사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곳을 한소열묘라고 부르지 않고 무후사라고 부를까. 중국인들에게 유비보다 제갈공명이 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은 신하의 지위를 넘어 황제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필자가 무후사를 찾은 날은 월요일인데도 중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제갈공명의 출사표는 유비의 사당인 한소열전과 무후사 사이 과칭(過廳)에 전시돼 있었다. 제갈공명의 친필은 아니고 남송시대 악비(岳飛) 장군이 쓴 글씨다. 악비는 무후사에서 '출사표'를 읽고 감동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한다.

유비 사당 회랑 내부 좌우에 배치된 소상(塑像·토우상)들도 눈길을 끌었다. 관우, 장비, 방통, 마속 등 '삼국지'에 등장하는 촉한의 주요 인물들이 망라돼 있으며, 문신무장량이라고 부른다. 소상들은 청대의 조각가들이 만들었으며 촉한의 군신서열에 따라 배치돼 있다. 동쪽에는 문신 14명,

1 제갈공명이 위나라 토벌을 위해 출진하면서 촉나라 황제 유선에게 바친 출사표. 무후사에 걸린 출사표 글씨는 제갈공명의 친필은 아니며 남송시대 악비 장군이 쓴 것이다. 2 무후사 내부의 모습. 3 공명전에 세워진 제갈공명의 토우상.



2



3



1



4

4 무후사 경내 서편에 자리잡은 유비의 무덤인 혜릉. 사진 왼편이 혜릉이다. 5 유비의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석. 한소열황제(漢昭烈皇帝), 즉 유비의 묘임을 알리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 6 삼의묘 주변에 세워진 유비의 석상. 삼의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한 것을 기념하는 사당이다.



5



6

패하고 바이디칭(白帝城)에서 죽자 제갈공명이 유비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겨와 묘를 만들었다고 한다.

무후사 문을 나서면 곧바로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진리(錦里) 거리와 연결된다. 길이 550m의 골목 곳곳에 들어선 찻집과 주점, 기념품점 등 풍성한 볼거리가 여행객을 맞는다. 무후사 정문 앞 삼국성지(三國聖地)라고 새겨진 3m가량의 석상 주변은 기념촬영을 하려는 사람들도 항상 붐빈다.

청두에서는 '촉도대도', '촉도화원' 등 이곳이 촉나라 땅이었음을 알리는 도로명이나 건물 이름이 자주 눈에 띈다. 택시기사 위안중원(袁仲文) 씨는 “청두에서 태어나 줄곧 생활하고 있다. 청두가 촉나라의 수도였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 여파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서쪽에는 문신 14명의 상을 세워놓았다. 한소열전 바로 뒤편에는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인 공명전(孔明殿)이 있다. 공명전 현판에는 '명수우주'(名垂宇宙)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름이 온 천하에 울린다'는 의미로, 두보가 무후사에 들러 제갈공명을 기리며 쓴 시의 한 구절이다. 뛰어난 학식과 지략으로 천하를 도모하던 제갈공명을 잘 표현한 글귀인 것 같다. 제갈공명의 상 앞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치열했던 그의 삶과 지혜를 돌아봤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한 사실을 기념해 세운 사당인 삼의묘(三義廟)도 눈길을 끌었다. 무후사 경내 서편에는 유비의 무덤인 혜릉(惠陵)이 있다. 223년 유비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팬더의 요람

“중국의 매력이며 팬더의 요람입니다”(中國魅力 熊貓搖籃)

청두시 팬더기지를 소개하는 안내지도 윗부분에 쓰여진 글귀다. 정책토론회 취재에 앞서 잠시 짬을 내 팬더기지를 찾았다. 팬더기지의 정식 명칭은 청두 대용묘번육연구기지(成都 大熊貓繁



1 팬더가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 다 자란 팬더는 하루 평균 15kg의 대나무를 먹는다. 2 청두 팬더기지에서 키우는 어린 팬더의 모습. 3 팬더기지 내부 전경. 면적이 100ha에 달한다.



育研究基地)다. 중국의 국보로 지정된 팬더를 인공적으로 번식시키고 연구하기 위한 기지다. 청두시 교외 북쪽 지역에 자리한 팬더기지는 면적이 자그마치 100ha에 달한다. 박물관, 사육장, 별장 등 각종 시설을 자랑한다. 입장료는 58위안이다.

팬더는 세계적으로 1천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팬더의 서식지는 중국이 유일하며, 85%가 쓰촨성에 산다고 한다. 팬더는 번식률이 극히 낮아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60~70마리의 팬더를 보유한 청두 기지는 팬더의 멸종을 막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팬더를 송마오(熊貓·웅묘) 또는 다송마오(大熊貓·대웅묘)라고 부른다. 다송마오는 팬더 가운데 '자이언트 팬더'를 지칭하기도 한다. 자이언트 팬더는 다 자리면 몸길이 약 1.6m, 몸무게 75~160kg에 달한다. 하루 15kg가량의 대나무를 먹는다. 게 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국은 팬더를 외교적으로 활용한다. 가까운 나라에 팬더를 대여해 우호관계를 다지면서 친중국 분위기를 조성한다. 팬더는 외국에선 '국민급' 대접을 받는다. 2014년 2월 청두팬더기지로부터

대여받은 수컷 '싱후이'(星徽)와 암컷 '하우하오'(好好)가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자 디 루포 당시 벨기에 총리는 직접 공항에 나가 영접했다. 벨기에 항공사인 DHL도 팬더를 '모셔 오기' 위해 전세기까지 동원했다. 팬더는 특히 서양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기자가 찾은 날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에서 온 관광객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팬더가 없다. 작년 팬더 대여 문제를 검토하다 비용 때문에 무산됐다고 한다. 희귀 동물인 팬더를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생육 기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광자원화해 돈을 벌어들이고 외교에 활용하는 중국인의 지혜가 돋보인다. ▼

INFORMATION



기본 정보

☀ 지리·기후·복합

청두는 분지에 있어 사계절 내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며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 여름은 상당히 덥고 길다. 겨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5~6도 정도지만 습도가 높아 춥게 느껴진다. 여행하기에 적당한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특히 꽃이 만개한 봄의 청두는 무척 아름답다.

🏠 환율·시차·전압

1위안은 약 180원 안팎이다. 시간은 한국보다 한 시간 느리다. 전압은 220V로 한국의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가는 법

하계 시즌(3월 29일~10월 24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청두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동계 시즌에는 비행 편수가 다소 줄어든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 여행 시 주의사항

청두는 대도시인데다 사람들도 운송해 중국의 동부 연안 대도시에 비해 치안 상태가 좋다. 다만 여행객이 많은 기차역 등에서 고가품을 노리는 소매치기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음식

충칭과 함께 쓰촨요리의 대표지로 꼽히는 청두에는 우리 입맛에 맞는 매콤한 먹을거리가 많다. 마파두부, 단단몐, 중국식 샤부샤부인 휘귀 등이 대표 음식이다.

둘러볼 곳



청양궁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사원이다. 도가의 시조인 노자의 출생지로 주나라 때 창건됐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의 청양궁은 대부분 청나라 때 보수되거나 재건됐다. 산문(山門)·영조전(靈祖殿)·혼원전(混元殿)·팔괘정(八卦亭)·삼청전(三清殿)·옥황각(玉皇閣)·당왕전(唐王殿)·강생대(降生臺)·설법대(說法臺) 등으로 이뤄져 있다. 팔괘정은 높이 20m의 8각형 정자로, 태상노군(太上老君) 곧 노자의 화신을 상징하는 용 81마리가 새겨져 있다. 시내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찾아가기 쉽다.

안순다리

청두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진장을 잇는 다리. 다리 위에 기와지붕을 한 멋진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식당으로 사용된다. 1746년에 지어져 2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소각사(昭覺寺)

7세기 당나라 시대에 지어진 절. 쓰촨성 제일의 불교사원으로 꼽힌다. 청두 팬더기지 부근에 있다. 대웅전, 원통보전 등의 건물이 볼만하다. 중국 불교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하루 종일 향을 피우면서 소원을 비는 관광객들로 붐빈다.

진리 거리

삼국시대의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으로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무후사와 인접해 있어 찾기 쉽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기념이 될 만한 물건들을 팔고 있어 쇼핑의 재미도 맛볼 수 있다. 서울 인사동과 비슷하다.

